무안연꽃축제 대비 맛집 육성 박차

닭고기 영양전골·갯장어 짜글이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관광 활성화 요식업체 대상 메뉴 전수 교육

닭고기 영양전골 .

불고기 샐러드.

갯장어 짜글이.

무안군이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 기간(21일 ~24일)에 발 맞춰 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안 맛집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농특산물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한 메뉴 전수 교육을 마쳤다.

특히 대상 요식업체들은 전수된 신메뉴를 조기 판매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며 완성메뉴로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을 추진하는 요식업체는 무안읍 남산가든과 내고향뻘낙지, 삼향읍 시골집, 남악골 산야초, 송악모빌, 후레쉬투고 6개소이며 기존에 컨설팅을 받은 승달가든, 무안갯벌낙지 2호점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가 메뉴를 전수했다.

이번 컨설팅은 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접근이 쉽고 부담없는 가격으로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군은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메뉴를 판매중인 시골집의 우렁 강된장과 남악골 산야초의 닭고기 영양전골, 후레쉬투고의 불고기 샐러드, 남산가든 갯장어 짜글이 등은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은 8월 중 현장 코칭을 마무리하고 대상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동안 전수받은 메뉴들을 평가하는 평가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무안연꽃축제가 대면축제로 개최됨에 따라 내·외부 고객 유치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음식관광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맛집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바라기 보러 완도 보길도 세연정으로 오세요"

4000㎡에 2만송이 활짝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세연정에 2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었다. 〈완도군 제공〉

"해바라기 향연 만끽하러 세연정으로 오세요."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에 자리한 우리나라 민간 3대 정원 중 하나인 세연정에 2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길면에서는 세연정 경관 조성을 위해 약 4000㎡ 공한지에 약 2만 송이의 해바라기를 두 차례에 거쳐 모종하고 잘 자라도록 수시로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껏 가꿨다.

해바라기는 7월 중 만개해 보길도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단 중앙에는 정자가 설치돼 있어 휴식을 취하며 여유롭게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정자 뒤편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하트 모양으로 조성해 포토 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보길면에서는 경관 조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꽃 묘목을 구입하지 않고 씨앗을 구입해 포트에서 발아시키고 이식 작업을 했으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했다.

보길면사무소 관계자는 "보길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꽃을 보며 힐링하고, 머무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 윤인자씨 '배귀리고추장' 대한민국장류대전 최우수상

신안에서 재배한 배와 귀리로 만든 고추장이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은 최근 윤인자(사진·압해읍)씨가 제4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고추장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4회 장류발효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최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홀 대강당과 북인사마당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출품한 윤씨의 '신안배귀리고추장'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안배와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신안천일염, 양질의 황토땅에서 자란 귀리를 주 재료로 만든 우리 전통 고추장의 맛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윤 씨는 오랜시간 섬음식개발과 전통발효장류, 장아찌 등에 관심을 갖고 개발해 판매하다가 지금은 후배양성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문화예술명인회에서 고추장명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윤 씨로부터 전수 받은 전진자씨가 지난해 '신안배고추장'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윤 씨가 최우수상을 거머쥐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신안의 맛깔나는 명품 고추장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한 몫을 해냈다.

윤 씨는 "이번 수상은 50여년 넘게 섬음식 개발에 힘써온 값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후배양성을 위해 많은 조리법을 개발하여 전수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해경, '무사증 밀입국' 단속 강화 나선다

제주 항로 여객선·화물선·어선 불시 검사 진행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에 따른 무사증 차단 및 검거를 위해 특별 외사활동을 강화한다. 〈사진〉

지난 달 태국 단체 관광객 178명이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기에 10여명이 탑승하지 않았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몽골 관광객 150여명 중 23명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도를 시도한 몽골·태국인 5명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따라 목포해경은 제주 무사증 이탈행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해상 및 항·포구에서 불시 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여객 및 화물 선사, 수협과 외국인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외국인 이탈 동향정보를 공유해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 적재적소 드림봉사단 운영 호응

영암군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영암 덕진면 노송2리 송내외마을회관에서 적재적소 드림봉사단을 운영했다.

마을별 필요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연계하는 적재적소 드림봉사단은 주민불편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한 마을을 찾아가 맞춤형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안전하고 원활한 봉사를 위해 송내외마을 신민준 이장은 인근 노노동마을 신도영 이장과 함께 사전에 각 가정을 방문해 칼갈이 물품을 수거해 정비한 전달했다.

또 15명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이미용과 메이크업 자원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연합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재능기부을 통해 적극 도움을 주신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풍경더하기회, 이미용봉사단, 아름다운사람들, 아름다운마음봉사회와 마을이장님, 부녀회장님 등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